

유아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리 인식과 구강보건지식과의 관계

이영미¹, 연영란¹, 김성중^{2*}

¹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간호학과, ²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물리치료학과

Relation with Mothers of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for Infants Oral Health Management

Young-Mee Lee¹, Young-Ran Yeun¹, Sung-Joong Kim^{2*}

¹Dep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Physical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유아구강관리 행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D시의 198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PC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구강질병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치과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아이의 충치가 진행되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한 인식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항목에서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0.05$).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치과에 데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는 불소가 치아에 효과적이다 라는 구강보건지식과 처음 치과에 방문 시기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이가 치통을 느낄 때 치과에 데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는 유아용 음식과 음료에는 설탕이 무첨가되어 있다는 지식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5$). 본 연구는 구강건강지식 및 인식도를 향상시켜 유아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knowledge of infants and the oral health management of their mothers. The participants were 198 mothers living in D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the SPSS/PC 20.0 program. The results revealed oral health to be a serious problem, and that a visit to a dentist regularly is importa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awareness and the confidence that can keep cavities from children did not show significant progress on any topic. A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confidence in children who visit a dentist once a year,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first visit times and the effects of fluoride on the teeth.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awareness and mothers' confidence when their children felt a toothache was better when they visited a dental clinic and their knowledge about infant food and beverages without sugar impro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the program for the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effective management in children's education.

Keywords : Infants Oral Health care, Oral Health, Oral Health Knowledge

본 논문은 2014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강원대학교 관리번호-220140135)

*Corresponding Author : Sung-Joong Kim(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l: +82-33-540-3371 e-mail: lymphkim@kangwon.ac.kr

Received February 4, 2016

Revised (1st February 29, 2016, 2nd March 2, 2016)

Accepted March 3,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1. 서론

구강에서 치아는 발음, 저작, 안모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신체의 일부분이다. 구강건강이란 치아를 포함하는 구강악안면 조직이 질병에 이환되지 아니하며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를 주지 않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를 의미한다[1].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강건강관리이며, 이는 구강과 관련된 지식 및 태도와 실천을 통해서 구강건강관리의 능력과 태도를 유지시키는 활동으로서, 이와 같은 구강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치아 표면에 계속적으로 부착되는 치면세균막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24]. 이러한 구강건강을 일생동안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때부터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습관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3]. 따라서 유아의 구강건강관리 하는 것은 일생을 통해 건강한 구강 상태로 증진하고 유지하는 것이며[4], 이 시기에 구강관리가 소홀해지면 평생 동안의 구강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5][25]. 그러므로 유아의 구강 건강관리는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유아기의 식습관은 당분이 많은 식품을 즐김과 동시에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구강관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며[6][26], 이러한 치아우식증은 성인보다는 유아에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기 쉽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치 우식으로 치아의 조기상실은 영구치 맹출과 영구치 발육에도 장애를 줄 수 있으며, 악골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어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도 있다[7].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잇솔질이 가장 효과적인 치면세균막 제거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잇솔질 만으로는 치면세균막을 완벽히 제거 할 수 없으므로 불소, 치과의 정기적인 방문, 치은 마사지, 보조용품 사용 등이 병행되면 더 효과적인 구강관리를 수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들의 경우 운동능력이 미숙하여 스스로 구강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자는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8].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필수적임으로 유아의 구강보

건행동들을 지도할 때 부모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들이 유아에게 올바른 잇솔질의 습관화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의 맹출부터 철저한 관리과 특별한 지도로 효과적인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 주체에 일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구강건강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가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부모 특히, 어머니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바른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행동, 습관 및 어머니의 관심도가 향상됨으로써 구강건강관리가 더욱 잘 이루어짐과 동시에 건강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10, 11].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에서 구강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강보건지식과 유아구강관리상태를 파악하여 어머니의 구강건강 행위 수준을 향상시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관리 지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 현 유아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유아구강관리 행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6월 30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D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5군데를 정하였다. 5군데 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4-7세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집의 유아 학부모 20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는 보육시설을 통하여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한 202부의 설문지 중 설문응답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한 198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강검진과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도와 이에 따른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과 구강보건지식을 묻는 항목을 포함하였다. 본 도구는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인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과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198)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N)	Percentage (%)
Age of mother(yr)	20-24	7	3.5
	25-29	89	44.9
	30-34	77	38.9
	35-39	22	11.1
	40-44	3	1.5
Age of father(yr)	20-24	7	3.5
	25-29	49	24.7
	30-34	81	40.9
	35-39	50	25.3
	40-44	10	5.1
Age of children(yr)	1	66	33.3
	2	71	35.9
	3	37	18.7
	4	4	2.0
	5	6	3.0
Academic background	Graduate from highschool	23	11.7
	Graduate from college	26	13.1
	Graduate from university	121	61.1
	Graduate from Graduate school	28	14.1
Income levels	200 above	10	5.1
	300 above	18	9.1
	400 above	28	14.1
	500 above	80	40.4
	700 above	31	15.7
	1,000 above	31	15.7
Total		198	100.0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어머니의 연령이 25-29세 이하가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연령이 30-34세 이하가 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이의 나이는 2세가 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득정도는 500만원 이상이 80명이라고 응답하였다.

3.2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에 관한인식을 분석한 결과,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의 각 하위항목별로, “구강질환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 항목의 평균평점은 4.13(±1.01)로 나타났으며, 치과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에는 4.26(±0.97), 연구대상자가 아이의 치아가 썩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응답의 평균은 3.75(±0.95)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는 치아를 닦는 것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는 3.85(±1.03)였고, 치과 의사만이 아이의 충치를 예방할 것이라는 인식에는 2.14(±0.96)으로 나타났으며, 아이의 치아건강에 대해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라는 응답에 3.56(±1.01)의 평균을 보였다. 아이의 치아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평균은 3.85(±1.06)을 보였고, 치아에 더 좋다면 아이의 식습관을 개선을 하겠다는 응답의 평균은 3.61(±1.06)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과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이의 충치가 진행되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고 인식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항목에서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0.05).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치과에 데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는 불소가 치아에 효과적이다 라는 구강보건지식과 처음 치과에 방문 시기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또한, 아이가 치통을 느낄 때 치과에 데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유아용 음식과 음료에는 설탕이 무첨가 되어 있다는 지식과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Table 2. Oral health awareness of the study subjects
n(198)

Question	Strongly agree	agree	normal	Do not agree	Do not agree with that at all	Not Sure	M±SD
Oral disease is a serious problem.	73 (36.9)	98 (49.5)	20 (10.1)	-	-	7 (3.5)	4.13±1.012
It is important to regularly visit a dentist.	88 (44.4)	93 (47.0)	10 (5.1)	1 (0.5)	-	6 (3.0)	4.26±0.967
I believe can help to prevent tooth decay in your child.	29 (14.6)	113 (57.1)	45 (22.7)	5 (2.5)	-	6 (3.0)	3.75±0.949
I am sure that the brushing teeth of my children have to perform.	47 (23.7)	101 (51.0)	35 (17.7)	9 (4.5)	-	6 (3.0)	3.85±1.031
I think that only a dentist can prevent tooth decay from occurring in the teeth of my children.	3 (1.5)	11 (5.6)	46 (23.2)	98 (49.5)	31 (15.7)	9 (4.5)	2.14±0.956
I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dental health of my children.	26 (13.1)	83 (41.9)	80 (40.4)	1 (0.5)	-	8 (4.0)	3.56±1.005
I feel a responsibility to select the best food in the teeth of my children	45 (22.7)	107 (54.0)	33 (16.7)	5 (2.5)	-	8 (4.0)	3.85±1.060
I would be willing to change the habits of tooth surfaces better for my child to eat a child.	29 (14.6)	95 (48.0)	58 (29.3)	7 (3.5)	1 (0.5)	8 (4.0)	3.61±1.060

Table 3. Correlation of oral health awareness and knowledge on oral health
n(198)

Division	Baby food and drink is sugar-free.	It is safe for children's fruit drinks.	Fluoride is effective for the tooth.	Number of times of toothbrushing	Kinds of toothpaste	Time of the first dental visit
I sure that you keep the child from caries progression.	0.035	-0.044	-0.088	0.082	0.037	0.002
I sure that I can take you to the children once a year to the dentist.	0.053	-0.125	-0.172*	0.080	0.067	-0.158*
I sure that I can take him to the dentist for your child to feel a toothach	0.170*	0.000	-0.064	0.015	0.016	0.067

*p<0.05

4. 논의

현대 사회에서 치아우식증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강병은 숙주요인, 병원체요인, 환경요인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데, 치아의 형태와 위치, 치열 등의 치아요인과 가정환경, 경제수준, 구강위생상태, 식품섭취실태 등의 환경요인 및 병원체요인은 치아우식증 발생의 중요요인이다[12]. 치아 우식증은 연령에 무관하게 영향을 미치며, 방치하거나 치료하지 않을 시 치아를 손실하기에 이른다[13]. 또한, 치아우식증의 경우 미취학 아동기와 청소년기, 즉 어린 시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른 시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생활 습관 또한 아동기부터 형성되며 이미 형성되어 자리 잡은 습관은 고치기가 어려우므로 유아기 때부터의 올바른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유아기에 발생하는 치아 우식증은 치아의 조기상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우식증은 후에 맹출하는 영구치의 우식증을 유발하고 영구치의 발육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유치의 조기상실이 발생할 경우 저작 장애와 영구치의 비정상적인 맹출로 인한 부정교합을 야기한다고 보고된바 있다[14]. 따라서 치아우식증을 비롯한 여러 구강병을 예방적 관리 효과는 성인에서 보다 유아에서 확연히 크기 때문에 치아가 맹출하기 시작하는 유아기부터의 구강 건강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15].

이러한 치아우식증을 비롯한 여러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아가 맹출하기 시작하는 유아기부터의 구강 건강관리가 요구되어진다. 사람의 치아는 유치 맹출 후 영구치가 맹출하게 되는데 유치가 처음 맹출하는 생후 6개월부터 관리가 필요하며 유아기의 식사는 주로 단음식 등이 많으나 이 시기의 아이들은 스스로 치태관리나 올바른 칫솔질, 식습관 등의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 부모(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16].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습관대로, 혹은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를 기르므로 부모의 구강건강행태는 자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부모(어머니)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와 실천 및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7]. 이렇게 여러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 중 어머니의 올바른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은 유아의 구강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나아가 구강건강 지도를 통하여 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Cho[18]의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의 96.1%가 어머니였던 것으로 보아 부모 중 어머니의 역할이 보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Metz와 Richards [19]는 부모의 구강보건행태가 자녀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Kim[20]등은 모친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은 자녀의 구강환경관리여부와 구강상병예방을 위한 진료수령여부 및 일반적인 구강진료수령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구강질병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치과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치과의사만 이충치를 예방할 것이라는 인식은 2.14(±0.96)으로 낮았고, 연구대상자가 아이의 치아가 썩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응답의 평균은 3.75(±0.95), 치아를 닦는 것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는 3.85(±1.03)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질병의 심각성과 정기적인 방문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강관리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이의 충치가 진행되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고 인식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항목에서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과 지식의 일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치과에 데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에 대한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는 불소가 치아에 효과적이다 라는 구강보건지식과 처음 치과에 방문 시기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치과에 데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불소도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처음 치과에 방문 시기가 늦을수록 치과에 정기방문에 대한 확신이 낮아진다는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아이가 치통을 느낄 때 치과에 데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유아용 음식과 음료에는 설탕이 무침가 되어 있다는 지식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용 음식이나 음료에는 설탕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치통을 느낄 때 치과에 데려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지식이 향상되면 그에 따라 구강건강도 향상되는데, 구강보건지식은 예방적인 방법의 실천을 증대시켜주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짐에 따라 건강

행위실천 역시 높아진다[21]. 따라서, 올바른 유아기의 구강건강관리는 치아우식증의 이환율을 낮추고 구강상병의 진행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의 구강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유지해주는 첫단계라 할 수 있다[22, 23].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강관리를 실천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부모들의 구강건강인식도는 유아의 구강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유아기에 치아우식병과 같은 구강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후속영구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유아의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부모의 역할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부모의 구강보건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영역에 따른 적절한 교육방법과 교육매체의 활용 및 제작방법에 필요한 구강보건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구강보건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는 다양한 매체가 보급되어야하며, 가정구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각적인 정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아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해야 하여 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Y. H. Kim, "Effect of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ur on Oral health status in their Pre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Vol.5, No.1, pp.15-27, 2005.
- [2] S. Y. Seo, S. H. Lee, D. Y. Kim, "Influence of Parents' Knowledge for Oral Hygiene on the Oral Health of their Infants," J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2, No.6, pp.1101-1110, 2012.
DOI: 10.13065/jksdh.2012.12.6.1101.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2.12.6.1101>
- [3] S. J. Moon, J. H. Park, Y. C. Choi, S. C. Choi "The Study of Changes in Oral Health Care of Preschoolers in Teabaek City through Oral Hygiene Education." J Korean Pedia Dent, Vol.36, No.1, pp.71-77, 2009.
- [4] M. S. Cho, S. S. Lee. "The Effect of Mother Oral Health Guidance on Child Oral Health Behavior," J Korean Acad Dent Hygiene, Vol.2, No.2, pp.173-185, 2000.

- [5] M. I. Shin, D. I. Paik, S. H. Hahn, et al. "Study on Oral Health Information in the Child Care Literatures," J Korean Soc Mater Child Health, Vol.5, No.1, pp.17-28, 2001.
- [6] Y. K. Lee, "A study on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0, No.1, pp.93 - 106, 2010.
- [7] M. H. Jung, S. H. Jun. "A Child Oral Care State according to Mother's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Selected Preschool in Daegu Metropolitan City," J Korean Soc Dent Hyg, Vol.10, No.6, pp.965-972, 2010.
- [8] H. S. Park, J. S. Kim. "A Survey of Parent's Oral Health Perception for the Oral Health Promotion of the Preschool Children," J Dent Hygiene Sci, Vol.7, No.3, pp.135-139, 2007.
- [9] H. J. Song,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Oral Health of the Infant in Kindergarten according to Mothers' Care," J Korean Acad Dent Hygiene Education, Vol.8, No.1, pp.59-71, 2008.
- [10] J. H. Han, D. S. Lim, Y. S. Ahn. "A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e in Children at Age 5 and the Oral Health Behavior in Mothers for Some Parts of Gyeonggi Gegion," J Dent Hyg Sci, Vol.9, No.1, pp.115-120, 2009.
- [11] Rajap LD, Petersen PE, Bakaeen G, Hamdan MA. "Oral Health Behaviour of Schoolchildren and Parents in Jordan," Int J Paediatr Dent, Vol.12, No.3, pp.168-176, 2002.
DOI: <http://dx.doi.org/10.1186/1472-6831-9-29>
- [12] E. S. Lee, S. C. Shin,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Oral Health Care Habits and Caries in the Deciduous Teeth," J Korean Acad Dent Health, Vol.20, No.3, pp.369-380, 1996.
- [13] G. M. Yi, H. J. Hyen, "A Study on Knowledge of Oral Health, Behavior, Self-Efficacy, Belief, and the Number of Dental Car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20 No.4, pp.531-539, 2009.
- [14] J. H. Kim, Y. S. Kim, "A Study on the Oral Health Care and Factors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 Hygienic Sciences, Vol.8, No.2, pp.117-128, 2002.
- [15] C. S. Park, E. J. Kang, J. Y. Song, K. S. Song, "The influence on infant oral health care from mother's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J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2, No.6, pp.1183-1192, 2012.
- [16] Y. H. Kim, "Effect of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ur on Oral health status in their Preschool Children," J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5, No.1, pp.15-27, 2005.
- [17] G. S. Cho, B. C. Yu, M. J. Cho, "A study on preschooler mother's responsibility based on experiences of oral health education," J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2 No.3, p.585-595, 2012.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2.12.3.585>
- [18] H. R. Cho,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Infant Oral Health and Related Health Behavior among Par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0 No.3, pp.196-204, 2014.
DOI: <http://dx.doi.org/10.4094/chnr.2014.20.3.196>
- [19] A. S. Metz, L. G. Richards, "Children's preventive dental visits: influencing factors," J Am Coll Dent, Vol.34, pp.204-212, 1967.
- [20] J. B. Kim, N. Y. Park, J. S. Kim, Y. S. Chang, K. H. Yu, N. Y. Park and T. M. Choi, "Study on the Oral Health Consciousness and Development of Oral Health Educational Materials," Report of NIH Korea, Vol.22, pp.691-712, 1986.
- [21] S. N. Lee, E. S. Kim,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care behavior of mothers for young children," J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2, No.6, pp.1071-1081, 2012.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2.12.6.1071>
- [22] G. Lee, "Improvement of oral hygiene methods for early childhood," J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Vol.34, No.2, pp.264-272, 2007.
- [23] M. Shin, D. Paik, S.Hahn, B. Jin, S. Huh, "Study on oral health information in the child care literatures,"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5, No.1, pp.17-28, 2001.
- [24] J.-Y. Nam, H.-J. Kim, "The influence of oral symptom recognition and oral care behavior on cases of dental caries in high school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 pp. 141-152, Jan.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1.29>
- [25] S.-M. Bae, H.-J. Kim, "Oral health status of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brushing oral health problems in some adul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4, pp.185-195, Aug.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8.08>.
- [26] S.-J. Jang, J.-H. Kim, S.-J. Lee, H.-J. Go, M.-H. Kang, S.-M. Bae, H.-J. Kim, "Dental Hygiene Program course(ADPE) based oral health and oral microbes can cha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4, pp.197-205, Aug.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8.09>

이 영 미(Young-Mee Lee)

[종신회원]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06년 2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응급간호학

연 영 란(Young-Ran Yeun)

[정회원]



- 2007년 10월 : AIIAS 국제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학, 건강증진, 조직문화

김 성 중(Sung-Joong Kim)

[정회원]



- 1995년 9월 ~ 2001년 9월 : 삼성서울병원 근무
- 2008년 8월 : 연세대학교 의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암 재활 물리치료, 기능해부학, 운동치료학